

뒤 알드의 《중화제국과 중국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자연(물리)에 대한 서술》 小考

沈泰植*

< 목 차 >

1. 들어가며
2. 유럽의 중국학과 뒤 알드
3. 판본
4. 나오며

1. 들어가며

본 글은 예수회 선교사 뒤 알드(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가 1735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판하여 근현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이미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유럽 중국학의 핵심 저술인 《중화제국과 중국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자연(물리)에 대한 서술》에 대한 연구이다.¹⁾

* 인하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Jean-Baptiste Du Halde,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4 vols. (Paris, 1735). 이후 '파리본'으로 줄임. 타타르('Tartarie', 프랑스어; Tartary, 영어)라는 말은 중세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아시아의 북부와 중앙아시아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실제 사용 대상은 다양하다. 중국 타타르는 중국 주변의 몽골과 티벳, 그리고 만주지역을 통상 일컫는다. Stephen Kotkin, "Defining Territories and Empires: from Mongol Ulus to Russian Siberia 1200-1800," SRC Winter Symposium: Socio-Cultural Dimensions of the Changes in the Slavic-Eurasian World (January 30 - February 1, 1997) 참조.

중세이후 근대로 넘어오면서 형성된 중국에 대한 유럽 지식은 초기의 긍정적 열광에서 차차 우열의 이분법에 의해 열등한 문명과 문화로 인식하는 태도로 변화했다. 신비와 이상향의 이미지가 일부 잔존하는 상태에서, '이성'을 낙관한 계몽기획에 깊게 뿌리박은 근대 유럽은 중국을 비롯한 비서구를 낙후와 정체로 인식하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영원히 잠자는 모습으로 그린다. 중국에 대한 열광에서 18세기 중반이후 비판과 비난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전 세계 문명을 우열로 단순화하는 서유럽의 이분법적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이를 유럽 중심주의(Eurocentrism) 탄생으로 일컫기도 한다. 근대의 비유럽 문명을 대립시키면서 서구문명의 근대 적합성을 그려내는 논의 속에서 중국은 기존의 우수한 문명에서 잠자는 문명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우열에 기반을 둔 우수한 서구문명 기획은 지리상의 발견과 중상주의,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시장과 원료 확보 요구와 함께 식민지 건설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팽창의 쌍두마차의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제국주의의 폐해를 묻고 반성하는 데서 더 나아가 소위 유럽 팽창의 사상적 기원이었던 서구문명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의문의 원인은 다양한 학술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양문명론의 배제원리를 간파한 푸코의 담론 연구가 그 하나이다. 담론 형성의 사회문화적 연원을 추적한 푸코의 담론 연구는 사회에서 배제의 권력으로 작동하는 담론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기존 유럽과 서구를 둘러싼 역사 서술의 담론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연원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유럽을 배타적으로 상정하면서도 유럽 자신의 근대 정체성 형성의 부분으로 자리잡은 담론 내면의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담론 형성의 작동 구조와 지식권력의 관계를 확장시켜 비유럽 세계에 대한 유럽의 시각과 그 담론 구조를 분석한 사이드의 연구는 우열의 관점을 넘어서서 상호 중첩되는 세계 지역 사이의 상호 문화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른 한편 미시사의 방법을 통해 발견한 유럽과 유럽 바깥의 일상에서의 상호의존성이 단일하고 배타적 우월성으로 진행된 서구의 독립적인 문명 기획이

사실은 근대의 '상상기획'이며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발견이 서구 주도의 근대를 의문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또 다른 배경이다. 서구를 둘러싼 비서구의 문화/문명권과의 끊임없는 교류와 상호침투에 의해 서구 문명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의 발견은 그리스-로마 문명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유럽문명사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러한 균열에는 페르시아와 이집트 문명, 중국문명 등 세계 다른 문화권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근대기획아래 견고하게 구조화한 인식들에 대한 반성도 포함한다.²⁾

동시에 고려하는 사항은 근현대 중국인들의 지식에서 발견되는 중국관이 서유럽에서 생산한 중국관과 상호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이다.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에게서 발견되는 중국에 대한 비판 논리에는 유럽에서 근대 문명기획아래 생산된 중국관이 서구에 대한 지식과 함께 수용되어 자리잡고 있는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지식상황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³⁾

뒤 알드의 책은 유럽의 문명기획 한 가운데 놓여 있고, 중국학 형성의 핵심적 요소로 평가받기 때문에 최근의 수정 조류에 맞닿아 있는 사고에서 더욱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뒤 알드의 저술에 대한 기초연구로 뒤 알드의 지적 배경이었던 유럽의 중국학 배경을 우선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 2) 기존 유럽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각으로는 조셉 폰타나의 유럽사와 에릭 홉스봄의 영국 근대에 대한 연구 참조. Joseph Fontana, 김원중 옮김, 《거울에 비친 유럽》 (서울: 새물결, 2000); Eric Hobsbawm, Terence Ranger 외,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The Invention of Tradition (1983)]》 (서울: 휴머니스트, 2004). 역사 서술의 전반적인 변화를 피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구사' 서술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David Christian 지음, 김서형·김용우 옮김, 《세계사의 새로운 대안 - 거대사 [This Fleeting World: A Short History of Humanity (2007)]》 (서울: 서해문집, 2009).
- 3) 19-20세기 중국 지식인들의 중국 표상에 서구인이 개괄한 중국시각이 중첩되는 상황이 적지 않은데, 한 예로 1926년 일기에서 보이는 魯迅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특성과 그에 대한 비판의식의 형성에는 일본인 安岡秀夫의 《소설로부터 본 중국 민족성》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安岡秀夫의 글은 Arthur H. Smith의 *Chinese Characteristics* (1894)와 S. W. Williams *Middle Kingdom* (1848)에 근거하여 중국인의 특성을 바라보고 있다. 차태근, <19세기 전반 동아시아 담론과 지식망>, 《중국현대문학》, 제32호 (2005), 144-145쪽 참조. 차태근은 19세기 전반기 중국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 형성에서 《중국총보(Chinese Repository)》가 차지한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지식인의 자기인식 방식이 누군가에 의해 액자화된 표상을 담은 거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식 형성의 중층관계를 보여준다.

저술의 판본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른 판본들 사이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뒤 알드 저술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유럽의 중국학과 뒤 알드

유럽과 중국의 만남은 그 기원에서 고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예수회 선교사들(Jesuits)의 활동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⁴⁾ 그 가운데 명나라 때 서양 선교사 최초로 중국 황제의 허가를 받아 북경의 고궁을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기독교 선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를 비롯한 예수회 신부와 수도사들은 유럽의 중국학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신학과 과학을 비롯한 유럽의 인문학과 과학지식을 섭렵한 학자이자 교육자이기도 한 이들은 한편으로 四書를 비롯한 중국 고전들을 번역하는 동시에 중국 장기 체류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당시 전 유럽 지식인의 공통어였던 라틴어로 출판함으로써 유럽 지성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⁵⁾

당시 프란체스코 수도회나 도미니크 수도회 등 다른 수도회 수사들이 중국 문화 이해에 천착하기보다 대중에 대한 기독교의 포교에 힘을 기울였던 것과

4) 유럽에서 중국학과 예수회에 대해서는 E. Zürcher, "From 'Jesuit Studies' to 'Western Learning,'" in Ming Wilson and John Cayley eds., *Europe Studies China* (London: Han-Shan Tang Books, 1995), pp. 264-279; 張西平, 《傳教士漢學研究》(鄭州: 大象出版社, 2005).

5) 예수회 신부들이 남긴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Zürcher의 앞의 글 참조. Zürcher는 중국에서 '西學' [Western Studies]이라 불리는 개념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제창한 '오리엔탈리즘' 이론의 수정을 통해서 유럽의 '타자'로서 '동양'이 생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유럽에 대한 동양의 영향을 살펴 본 연구로는 J. J. Clarke, *Oriental Enlightenment: The Encounter Between Asian and Western Though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참조.

달리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예수회 신부들은 중국문화와 사상에 유달리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다른 수도회와 마찬가지로 포교의 목적으로 고문과 당시 백화에 대한 언어능력 배양을 위해 사전 만들기과 언어관련 연구를 수행했지만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학문적으로 자신들의 지적 배경인 유럽 전통과 동일한 선상에서 중국문화와 철학전통을 탐구해 들어갔다. 예수회 선교사들의 이와 같은 다른 행로는 중국의 고대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화에서 기독교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들의 독특한 해석 때문이었다. 그들은 뛰어난 문화 전통 속에서 현명하게 교육받은 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로 중국을 묘사했고, 현명한 통치자와 지배 엘리트들은 의례라는 제도를 통해 상제와 천(天)이라고 하는 더 높은 이상을 현실의 삶과 접목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⁶⁾

계몽주의 시기 중국의 철학, 정치체제와 예술은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몽테뉴, 라이프니츠, 볼테르 같은 사상가들은 중국에 심취하여 중국을 이상화된 제도와 윤리를 갖춘 이미지로 만들었다.⁷⁾ 특히 볼테르는 “동양에는 가장 오랜 문명과 가장 오랜 종교형식, 그리고 모든 예술의 요람이 존재하므로 ‘서양이 가진 모든 것은’ 동양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⁸⁾ 중국에 대한 열광이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 확산되었지만, 18세기 말경에 이르러 급격하게 쇠퇴하여 전과 달리 중국을 우열의 관점에서 낙후와 야만 그리고 강압스런 전제주의라는 이미지로 그려내기 시작했다. 비판의 가장 강력한 목

6) 중국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의 이러한 활동을 먼젤로는 예수회의 적응주의로 해석하면서 유럽에서의 초기 중국학의 성립을 고찰하고 있다. David E. Mungello, *Curious Land: Jesuit Accommodation and the Origins of Sinolog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이항만·장동진·정인재 옮김, 《진기한 나라, 중국 - 예수회 적응주의와 중국학의 기원》 (서울: 나남, 2009).

7) 계몽주의 시기 예수회의 활동과 유럽지식인의 중국관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조. 張國剛·吳莉葦, 《啓蒙時代歐洲的中國觀 - 一個歷史的巡禮與反思》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8) 볼테르의 주장은 J. J. Clarke, 앞의 책, 44-45쪽에서 재인용. 유럽 근대철학의 일원론 확립과 철학체계의 고유성으로 20세기 후반 새로이 각광받은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중국 고대철학의 영향은 최근에야 연구가 활발하다. 1994년 중국에 관한 라이프니츠의 글들이 묶여 영어로 번역되었고, Perkins의 책에서 본격 연구가 이루어졌다. G. W. Leibniz, *Writings on China*, edited and translated by D. J. Cook and H. Rosemont (Chicago: Open Court, 1994); Franklin Perkins, *Leibniz and China: A Commerce of L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소리 중 한 예는 루소인데, 그는 중국을 쇠퇴하는 문명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 하면서 “그들(중국인)이 짓지 않은 죄악이 없고, 그들이 공유하지 않은 범죄가 없다”고까지 비난하기에 이른다.⁹⁾

18세기 중국에 대한 호의가 심각하게 쇠퇴한 원인은 18세기 중반 폼페이 유적 발굴에 따른 헬레니즘 문화의 부활로 중국에 파견되었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철수도 큰 몫을 차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들과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부풀려졌고, 중국의 사회제도, 철학, 문화에 관한 묘사가 “실제로 정당한 근거가 있기보다는 맹목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중국에 대한 초기 유럽의 긍정적 인식을 제공한 예수회가 프란체스코 수도회나 도미니크 수도회와의 중국 전례논쟁 속에서 교황청이 예수회의 입장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에서 힘을 잃고 위축되는 상황도 18세기 후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작용했다.¹⁰⁾

뒤 알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는 동시에 중국 전례논쟁으로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던 17-18세기의 유럽의 파리에서 태어났다. 카톨릭 예수회의 중국학 선구자를 대표하는 뒤 알드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르고비(Legobien) 신부의 뒤를 이어 예수회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선교활동을 진행하며 보내 온 각종 문서와 서신들을 수집·분류하는 일을 맡았다. 그의 저서 가운데 18세기 중국 열풍에 일조한 책이 《중화제국과 중국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자연(물리)에 대한 서술》이었다. 그가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면서 출판 당시 중국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전문 지식을 담은 저서로 평가된 이 책을 서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생 예수회 선교단의 중국 관련 문건들을 수집·정리

9) 18세기 중국에 대한 유럽의 시각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Basil Guy, *The French Image of China before and after Voltaire* (Geneve: Institut et Musee Voltaire, 1963); A. Reichwein, *China and Europe: Self-intellectual and Artistic Contacts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Kegan Paul, 1925), 94쪽.

10) 중국 전례논쟁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George Minamiki, *The Chinese Rites Controversy from Its Beginnings to Modern Times*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1985); 張國剛, 《從中西初識到禮儀論爭 - 明清傳教士與中西文化交流》(北京: 人民出版社, 2003), 제7장 참조.

한 그의 역할 때문이었다. 뒤 알드의 또 다른 대표적 업적이라 할 예수회 선교사의 편지 모음집도 당시 지식인들에게 중국의 정보를 덜 여과된 목소리로 직접 접할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각광을 받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¹¹⁾

3. 판본

파리본(1735)

뒤 알드의 《중화제국과 중국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자연(물리)에 대한 서술》 첫 번째 출판은 1735년 파리였다. 이 책에는 앞서 살폈던 뒤 알드의 작업에 의해 축적된 수 년 동안의 중국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서, 편지, 번역과 기타 수많은 자료가 포함되었다. 모두 4권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전체 쪽수가 25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책의 크기는 가로 약 28cm 세로 44cm의 대형판으로 고품질의 인쇄와 종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그림과 지도 또한 세밀하고 정교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판본이다.¹²⁾

뒤 알드의 평소 작업 그리고 그의 기획의도와 관련시켜 자료형식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실제 측량되어 제작된 최신판 지도들과 중국 지리에 대한 세부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된 중국 자료들이다.

11) Jean-Baptiste Du Halde,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Missions étrangères, par quelques missionnaires de la Compagnie de Jésus from 1711 to 1743*. 출판이후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유럽의 신학과 세계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 이 책 시리즈에서 뒤 알드가 편집한 부분은 1709년에서 1743년 사이에 수집된 편지들로 제9권에서 제26권까지다. 1749년부터 1776년까지의 편지들을 수집·정리한 편집자는 P. Patouillet로 제27권부터 제34권으로 출판되었다. 최근에 중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杜赫德 編, 鄭德弟, 呂一民, 沈堅 譯, 《耶穌會士中國書簡集 - 中國回憶錄》(鄭州: 大象出版社, 2005).

12) 구체적 크기에 대해서는 경매 사이트에 나온 자료를 참조. 참고로 2010년 현재 경매시장에서 파리 초판본은 4권 세트가 적게는 5천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한다. www.christies.com

헤이그본(1736)

파리본 출판 다음해인 173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프랑스어인 파리본의 재인쇄가 이루어진다.¹³⁾ 내용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인쇄라고 봐야 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편집 레이아웃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문 앞에 나오는 서문은 파리본과 헤이그본 모두 동일하게 1단으로 편집되어 있으나 본문부터는 파리본은 2단으로, 헤이그본은 1단으로 편집되어 있다. 또한 책의 판형 또한 파리본보다 훨씬 작아지고 종이와 인쇄의 질 또한 파리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시 책값을 생각한다면 가격 면에서 현재의 원화 100만원을 쉽게 넘어서는 호화로운 장정의 파리본보다는 훨씬 저렴한 헤이그본이 유럽의 프랑스어 지식인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¹⁴⁾ 파리본 출판 바로 다음해에 동일한 프랑스어 판본이 재인쇄된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장소만 달리한 판본으로 쉽게 여겨질 수 있는 1736년 헤이그본의 재인쇄는 그것을 요구하는 보다 많은 독자층의 수요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초 중국 정보에 대한 유럽 지식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열망의 수준을 반영하는 단서이고, 이는 밑에서 살펴 볼 추가 번역본 출판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편집의 레이아웃과 크기 그리고 질의 저하라는 다른 점 외에 헤이그본의 다른 특징은 파리본에서는 4권 각각에 포함되었던 40장이 넘는 지도들이 헤이그

13) Jean-Baptiste Du Halde,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enrichie des cartes générales et particulières de ces pays ...* (A La Haye: chez Henri Scheurleer, 1736). 이후부터는 '헤이그본'이라 줄임. 헤이그본은 다음 온라인 자료 참조. www.google.co.kr/books?id=m7IWAAAAQAAJ (2010년 10월 30일 방문).

14) 헤이그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대부분 지역은 종교 개혁과정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중상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흐름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인쇄술이 발전하는데, 이러한 인쇄와 출판업의 발전이 뒤 알트 저술의 헤이그본 출판의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근대 유럽의 인쇄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조. Elizabeth L. Eisenstein 지음, 전영표 옮김, 《근대 유럽의 인쇄 미디어 혁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특히 제3장.

본에서는 다음해인 1737년에 별도의 부록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유럽에서 지리상의 발견과 함께 증폭된 지리학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의 반영인 동시에 뒤 알트의 책이 갖고 있는 지리정보에 대한 탁월함을 주목한 결과이기도 하다.

헤이그본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차이는 파리본의 머리말과 본문 사이에 파리본에 없는 편집자의 <일러두기(Avertissement)>와 당시까지 유럽에서 출판된 중국에 관한 98권 저서의 목록 삽입이다.¹⁵⁾ <일러두기>에 이어서 배치된 목록은 1736년까지 나온 중국 관련 저서를 거의 망라하는 꼼꼼한 목록으로 18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중국학 연구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이 목록은 단순한 나열처럼 보이나 헤이그본 편집자의 <일러두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참고목록 작성의 의도가 드러난다. 부가된 수많은 중국학 관련 연구서를 독자들이 비교해 본다면 이번엔 재출판하는 뒤 알트의 저서의 우수함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¹⁶⁾ 편집자의 이 같은 언급은 뒤 알트 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이는 동시에 중국학 목록과 함께 별도의 지도부록의 출판은 당시 중국과 세계 지리정보에 대한 유럽 독자들의 관심을 고려한 출판과 홍보 전략으로 읽힌다.

영어본: 케이브본(1738, 1741)과 왓츠본(1736~1741)

유럽 대륙과 유사하게 영국에서도 선교사들과 계몽주의 시기 지식인들의 중국 이미지 만들기에 동참했는데, 영국 근대철학을 대표하는 한 사람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이나 평론가이며 외교관인 윌리엄 템플경 등이 그 대표자들이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드물었던 영국에서는 유럽 대륙과 달리 주도적인 중국 관련 저술을 생산하지 못하고 주로 유럽 대륙의 저술을 번역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유럽 대륙을 통해 중국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

15) 98권의 목록은 헤이그본, 제1권, lxxiv(74)-lxxx(80)쪽.

16) 헤이그본, 제1권, lxvi(66)쪽.

이었다. 이들에게 파리본 출판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출판된 두 종류의 영어본은 그래서 지적 반향이 적지 않았다.

번역본 가운데 가장 원본에 충실하다고 평가 받는 영어번역본은 에드워드 케이브(Edward Cave, 1691-1754)가 2권으로 출판한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and Chinese-Tartary, together with Kingdoms of Korea and Tibet* 이다.¹⁷⁾ 제1권은 1738년, 제2권은 3년 후인 1741년에 출판되었다.

책의 판형을 크게 줄이고 비용을 절감해서 4권으로 출판한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은 에드워드 케이브의 경쟁자 존 왓츠(John Watts)가 제목을 조금 수정하여 출판한 왓츠본이다.¹⁸⁾ 케이브본이 충실한 번역과 1735년 파리본 원본과 동일한 질을 보여주지만, 뒤 알드의 저서를 영미권을 비롯한 보다 넓은 지식세계로 안내한 책은 왓츠본일 것이다. 세계의 우수 대학의 도서관과 영미 도서관에 보관된 영어본은 케이브본보다는 왓츠본이 압도적이며, 이후 영어권 학계에서 참고하는 영어 번역본 또한 왓츠본이 압도적이다. 조선시대 그리고 20세기 전반기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담은 글들을 번역한 《한말외국외국인기록》 시리즈 가운데에서도 뒤 알드의 책을 일부 번역하여 실렸는데, 번역 원본은 프랑스어 파리본이 아닌 영어번역본 가운데 왓츠본이다.¹⁹⁾ 그러나 왓츠본은 원본의 지도와 그림들이 상당히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본의 순서도 수정되어 있고 더욱이 번역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원본을 임의로 삭제 혹은 축약했기 때문에 뒤 알드의 《중화제국과 중국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17) J. B. Du Halde,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and Chinese-Tartary, together with Kingdoms of Korea and Tibet: containing the Geography and History (Natural as well as Civil) Countries. Enrich'd with general and particular Maps, and adorned with a great Number of Cuts*, 2 vols. (London: T. Gardner, vol.1: 1738, London: Edward Cave, vol.2: 1741).

18) P. Du Halde,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Containing a Geographical, Historical, Chronological, Political and Physical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Chinese-Tartary, Corea and Thibet* (London: J. Watts, 1736-1741).

19) Hendrick Hamel, Du Halde, Basil Hall 지음, 신복룡·정성자 옮김, 《하멜 표류기, 조선전, 조선서해탐사기》 (서울: 집문당, 1999).

자연(물리)에 대한 서술》을 참고할 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왓츠본인 아닌 프랑스어 원본 가운데 파리본과 영어번역본은 케이브본이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어본(1747-1749)

두 종류의 영어번역본 출간 후 1740년대 후반(1747-1749년)에 파리본의 독일어 번역이 원본과 동일하게 4권으로 출간되었다.²⁰⁾ 헤이그본처럼 크기와 인쇄질에서 파리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목차와 구성에서 파리본의 충실한 번역으로 나타나며, 각권마다 파리본에 없는 글들이 추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1권에서는 루터교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Johann Lorenz von Mosheim (1694?-1755)의 서문이 추가되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격화되기 시작한 카톨릭과 신교간의 긴장과 충돌 속에서 신교에 속한 Mosheim의 글이 예상과는 달리 뒤 알드의 저작에 대해 비판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조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²¹⁾ 그러나 당시 카톨릭에 대한 신교의 저항도 독일어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3권에 예수회를 비판하는 Norbert de Bar-le-Duc (1697-1769)²²⁾의 글 일부는 이러한 비판의 논조를 담고 있다. 추가된 다른 예 가운데 하나는 독일어본 제4권에 1727년 런던에서 영어로 출판된 Engelbert Kaempfer(1651-1716)의 《일본역사[*The History of Japan*]》가 독일어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²³⁾

20) Johann Baptista Du Halde, *Ausführliche Beschreibung des Chinesischen Reichs und der grossen Tartarey*, 4 vols., (Rostock: verlegt Johann Christian Koppe, 1747-1749) <http://opus.kobv.de/slbp/volltexte/2010/3180/> 참조. 이후 '독일어본'으로 줄임.

21) 독일어본, 제1권, Mosheim, <서문> 참조.

22) 독일어본, 제3권, 162-177쪽 참조.

23) 동남아시아를 경유하여 1691년과 1692년 2년 동안 일본에 머물렀던 물리학자이자 박물학자인 Kaempfer가 작성한 독일어 미출판 필사본 원고가 그이 사후 영국인 Hans Sloane 경에게 수집되어 1727년 영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Engelbert Kaempfer, *The*

독일어본은 원본인 파리본만을 번역 대상으로 삼지 않고 1736년 출판된 헤이그본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는데, 헤이그본에 실린 100여개의 중국 관련 저서 목록이 독일어본 제1권에도 실려 있기 때문이다.²⁴⁾ 그러나 두 목록의 배열 순서가 상이한데, 헤이그본에 실린 목록은 시간 순서에 의해 작성되어 있는 반면 독일어본에 실린 목록은 주제별로 분류되었다. 이 밖에 영어본이 파리본에 나타나는 중국어 발음을 영어식으로 수정한 반면 독일어본은 파리본의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싣고 있다.

러시아어본(1774, 1777)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은 서유럽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서유럽과 달리 종교에서 러시아 정교라는 특색, 러시아가 시베리아와 동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할 때 중국과 근거리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전쟁과 충돌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역사적 상황 등이 그것이다. 1689년 국경분쟁으로 인해 체결된 네르친스크 조약은 러시아가 일찍부터 서유럽과는 달리 중국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다른 입장의 형성을 만들어냈다. 네르친스키 조약으로 북경에 머물 수 있게 된 러시아 정교 선교단은 예수회 선교사들보다도 더 외교와 학자적 연구에 몰두했다. 동시에 북경의 예수회 선교사들과 긴밀히 접촉했다.²⁵⁾ 18

History of Japan: Giving an Account of the Ancient and Present State and Government of that Empire ... of the chronology and succession of the emperors ... together with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translated by John Gaspar Scheuchzer) (London: Printed for the translator, 1727). 2권으로 출판된 영어본은 출판이후 수백 년 동안 일본에 관한 유럽지식의 핵심을 구성했다. 뒤 알드 파리본의 독일어 번역본 제4권에 포함된 Kaempfer의 《일본역사》는 저자 자신의 육필원고가 아닌 1727년 출판된 영어번역본을 다시 독일어로 번역한 이중 번역본이다. Kaempfer의 독일어 육필원고는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에 보관되어 있으며, 2001년 이후 육필원고를 모아 6권으로 출판되었다. 《일본역사》의 독일어 육필원고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출판되었다. Engelbert Kaempfer, *Heutiges Japan 2 vols* (Herausgegeben von Wolfgang Michel und Barend J. Terwiel. 2001).

24) 독일어본 제1권, 48-55쪽.

25) 중국의 러시아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Barbara Widenor Maggs, "The

세기에만 저서와 논문이 120여 편에 달했던 러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은 18세 중반까지 흥성했던 중국에 대한 서유럽의 흥미와 열정이 유사하게 존재하는 한편 그 반대 태도도 공존하는 상황이었다.²⁶⁾

서유럽의 중국학자들이 러시아에서 중국학 저서를 라틴어와 러시아어로 출판하는 상황에서 뒤 알드의 저서에 대한 관심은 파리본 출판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 1740년대 초 뒤 알드 책의 일부가 이미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다. 1770년대에는 총 8권으로 전체번역의 기획이 세워졌으나 그 중 2권만이 번역되었다. 번역된 부분은 파리본의 제1권에 포함된 지리와 역사 부분이다.²⁷⁾ 러시아어본 제1권은 파리본 제1권의 중국 지리정보와 도시정보가, 러시아어본 제2권에는 파리본의 제1권 후반부에 실린 중국통사가 번역되어 실렸다.²⁸⁾

8권으로 기획된 번역이 2권으로 중단된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측 가능한 재정적인 문제 이외에도 이미 부분적으로 뒤 알드의 책 가운데 러시아에서 필요로 하는 군사적이고 지리적인 사항들이 번역되었고, 1770년대 이미 러시아에서 접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정보는 뒤 알드의 책에서 제공하는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²⁹⁾

1735년 뒤 알드의 파리본 이후 헤이본과 경쟁 속에 생산된 두 종류의 영어본, 그리고 독일어본과 미완성의 러시아어본의 출판은 18세기 중반 이후 중국

Jesuits in China: Views of an Eighteenth-Century Advisor," *Eighteenth Century Studies*, vol.8 (1974-1975), 137-152쪽.

26) Vladimir Stepanovich Myasnikov, "The History of Sinology in Russia and the USSR," *Far Eastern Affaires*, vol.2 (1974), 34쪽.

27) Barbara Widenor Maggs, "China in the Literature of Eighteenth Century Russi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Champaign-Urbana, 1974), 59-61쪽, 115쪽 참조. 러시아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1774년에 제1권이 1777년에 제2권이 출판되었다. *Geografichkoe, istoricheskoe, Khronologicheskoe, politicheskoe I fizicheskoe opisanie Kitaiskii imperii I Tartarii kitaiskii, snbdennoe raznymi chertezhami I reznymi figurami*, 2vols. (St. Petersburg, 1774; 1777). 이후부터 '러시아어본'으로 줄임. 러시아본에 대한 서지사항은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온라인 사이트 정보 참조. www.bnf.fr

28) 러시아어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Boleslaw Szczesniak, "A Russian Translation of J. B. Du Halde's *Descriptipn de l'Empire de la Chinese*," *Monumenta Serica*, Vol.17 (1958), 373-376쪽.

29) Boleslaw Szczesniak, 앞의 책, 375-380쪽 참조.

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산출되기 전 이상적 세계로서의 중국 정보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고 동시에 이전의 라틴어 번역이 아닌 각기 자국의 언어로 출판되는 양상의 보편화는 다가올 유럽의 국민국가 형성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언어의 형성이 뒤 알드의 번역본 생산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준다.

4. 나오며

영어번역본 가운데 하나인 케이브본의 번역자 서문에서 “이번 권과 다른 권의 절반 정도는 역사, 자연, 문명에 대해 이전에 출간된 책들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의 일부분만을 보았던 사메도(Samedo), 매갈베인즈(Magalbanes), 나바렐(Navarelle), 르 콩트(le Comte) 등 다른 저자들의 저서와는 비견될 수 없는 완전하고 정확한 묘사를 담고 있다. 또한 다른 여행자들이 밝히지 않았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어 ... 풍성하고 정확한 기록이 되었다”³⁰⁾라는 찬사와는 반대로 먼젤로는 이 책을 한 세대 앞 선 예수회의 중국학 선구자 마르티니(Martino Martini, 1614-1661)의 《중국사》(1658)를³¹⁾ 잇는 정통 중국 역사서라고 소개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마르티니 역사서의 아류이자” 동시대 예수회 선교사인 “르 콩트(Le Comte, 1655-1728)의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새로운 회고》(1696)의³²⁾ 아류”라고 혹평하였다.³³⁾

30) 케이브본, “The Translator’s Preface,” p. i.

31) Martino Martini, 《중국상고사 혹은 극동에서 인민의 시초에서 예술의 탄생까지 혹은 중국인들의 대제국건설에 관한 중국사 첫 10부기》[*Sinicae historiae decas prima res a genis origine ad Christum natum in extrema Asia, sive Magno Sinarum Imperio gestas complexa*] (Munich, 1658; Amsterdam 1659). 뮌헨과 암스테르담 판본은 라틴어로 쓰였고, 1692년 파리에서 프랑스어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32) Le Comte,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새로운 회고》[*Nouveaux mémoires sur l’état présent de la Chine*] (Paris, 1696).

33) David E. Mungello, 앞의 책, 203쪽.

그러나 일반적으로 18세기 유럽에서 중국 문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저술 가운데 하나라고 뒤 알드의 책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뒤 알드가 궁극적으로 그의 책이 공헌해야 할 영역이라고 상정했던 종교 특히 가톨릭계에서 나오기 보다 이 책이 좀 더 영향을 미친 18세기 새로운 사상과 사회체제를 제시해야 했던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에게서 자주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마샬과 윌리엄즈는 이 책이 18세기까지 출판된 비유럽 세계에 대한 몇몇 다른 저서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인식을 통찰로 이끌었던 권위 있는 저술이라고 밝히고 있다.³⁴⁾

이 책에 대한 평가에는 이전의 중국 관련 저서들이 주로 라틴어로 출판되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기 유럽의 중국학은 포르투갈과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세 지식인의 공통어였던 라틴어가 일반적인 서면어였다.³⁵⁾ 그러나 뒤 알드의 책은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로 쓰여 졌고, 짧은 시간 안에 두 종류의 영어 번역본과 독일어본 그리고 후에 러시아어본까지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보다 광범위한 계몽시대 사상가들과 지식인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의 중심에서 문화적 거리를 유지하며 긴장관계에 있던 영국의 지성계에 뒤 알드 책의 파급력은 이전의 번역되지 않은 채 유통되었던 라틴어 혹은 프랑스어 중국학 저서들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³⁶⁾ 이런 의미에서 먼젤로의 평가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34) Peter Marshall and Glyndwr Williams, *The Great Map of Mankind: British Perceptions of the World in the Age of Enlightenment* (London: J. M. Dent, 1982), 84쪽 참조.

35) 유럽의 라틴어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조, 특히 제3장. Françoise Waquet, John Howe (trans), *Latin, or the Empire of a Sign: From the Six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ies*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2)

36) Marshall and Williams, 앞의 책, 제2장 참조.

< 참고문헌 >

- Clarke, J. J. *Oriental Enlightenment: The Encounter Between Asian and Western Though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 Christian, David 지음, 김서형·김용우 옮김. <세계사의 새로운 대안 - 거대사 [This Fleeting World: A Short History of Humanity (2007)]>. 서울: 서해문집, 2009.
- Du Halde, Jean-Baptiste.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4 vols. Paris, 1735.
- Du Halde, Jean-Baptiste.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enrichie des cartes générales et particulières de ces pays*. A La Haye: chez Henri Scheurleer, 1736.
- Du Halde, Jean-Baptiste.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and Chinese-Tartary, together with Kingdoms of Korea and Tibet: containing the Geography and History (Natural as well as Civil) Countries. Enrich'd with general and particular Maps, and adorned with a great Number of Cuts*, 2 vols. London: T. Gardner, vol.1: 1738, London: Edward Cave, vol.2: 1741.
- Du Halde, Jean-Baptiste.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Containing a Geographical, Historical, Chronological, Political and Physical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Chinese-Tartary, Corea and Thibet*. London: J. Watts, 1736-1741.
- Du Halde, Jean-Baptiste. *Ausführliche Beschreibung des Chinesischen Reichs und der grossen Tartarey*, 4 vols. Rostock: verlegt Johann Christian Koppe, 1747-1749.
- Du Halde, Jean-Baptiste. *Geografichkoe, istoricheskoe, Khronologicheskoe, politicheskoe I fizicheskoe opisanie Kitaiskiia imperii I Tartarii kitaiskiia, snbdennoe raznymi chertezhami I reznymi figurami*, 2 vols. St. Petersburg, 1774; 1777.
- Du Halde, Jean-Baptiste.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Missions*

étrangères, par quelques missionnaires de la Compagnie de Jésus from 1711 to 1743. 杜赫德 編, 鄭德弟, 呂一民, 沈堅 譯. 《耶穌會士中國書簡集 - 中國回憶錄》. 鄭州: 大象出版社, 2005.

Eisenstein, Elizabeth L. 지음, 전영표 옮김. 《근대 유럽의 인쇄 미디어 혁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Fontana, Joseph 지음, 김원중 옮김. 《거울에 비친 유럽》. 서울: 새물결, 2000.

Guy, Basil. *The French Image of China before and after Voltaire.* Geneve: Institut et Musee Voltaire, 1963.

Hamel, Hendrick, Du Halde, Basil Hall 지음, 신복룡·정성자 옮김. 《하멜 표류기, 조선전, 조선서해탐사기》. 서울: 집문당, 1999.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외,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The Invention of Tradition (1983)]》. 서울: 휴머니스트, 2004.

Kaempfer, Engelbert. *The History of Japan: Giving an Account of the Ancient and Present State and Government of that Empire ... of the chronology and succession of the emperors ... together with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translated by John Gaspar Scheuchzer. London: Printed for the translator, 1727.

Kaempfer, Engelbert. *Heutiges Japan*, 2 vols. Herausgegeben von Wolfgang Michel und Barend J. Terwiel, 2001.

Kotkin, Stephen. "Defining Territories and Empires: from Mongol Ulus to Russian Siberia 1200-1800." SRC Winter Symposium: Socio-Cultural Dimensions of the Changes in the Slavic-Eurasian World. January 30 - February 1, 1997.

Leibniz, G. W. *Writings on China*, edited and translated by D. J. Cook and H. Rosemont. Chicago: Open Court, 1994.

Maggs, Barbara Widenor. "The Jesuits in China: Views of an Eighteenth-Century Advisor." *Eighteenth Century Studies*, vol.8. 1974-1975.

Marshall, Peter and Glyndwr Williams. *The Great Map of Mankind: British Perceptions of the World in the Age of Enlightenment.* London: J. M. Dent, 1982.

Minamiki, George. *The Chinese Rites Controversy from Its Beginnings to Modern Times.*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1985.

- Mungello, David E. *Curious Land: Jesuit Accommodation and the Origins of Sinolog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이향만·장동진·정인재·옴김. 《진기한 나라, 중국 - 예술회 적응주의와 중국학의 기원》. 서울: 나남, 2009.
- Perkins, Franklin. *Leibniz and China: A Commerce of L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Reichwein, A. *China and Europe: Self-intellectual and Artistic Contacts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Kegan Paul, 1925.
- Szczesniak, Boleslaw. "A Russian Translation of J. B. Du Halde's *Descriptipn de l'Empire de la Chinese*," *Monumenta Serica*, Vol.17. 1958.
- Waquest, Françoise, John Howe (trans). *Latin, or the Empire of a Sign: From the Six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ies*.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2.
- Zürcher, E. "From 'Jesuit Studies' to 'Western Learning'." in Ming Wilson and John Cayley eds. *Europe Studies China*. London: Han-Shan Tang Books, 1995.
- 차태근. <19세기 전반 동아시아 담론과 지식망>. 《중국현대문학》, 제32호. 2005.
- 張國剛. 《從中西初識到禮儀論爭 - 明清傳教士與中西文化交流》. 北京: 人民出版社, 2003.
- 張國剛·吳莉葦. 《啓蒙時代歐洲的中國觀 - 一個歷史的巡禮與反思》.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張西平. 《傳教士漢學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2005.
- www.christies.com 크리스티 경매 온라인 사이트
- www.bnf.fr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온라인 사이트

< 中文提要 >

本文章對耶穌會傳教士杜赫德(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編撰於1735年的著書《中華帝國全志》進行了研究。產生在近代歐洲的有關中國的資料,其量和深度非同一般得令人驚奇。在漫長的歷史裡東亞和東南亞國家通過與中國的交流積蓄了很多有關中國的

資料, 但與此相比, 近代歐洲積蓄的有關中國學資料, 在數量和內容方面更加津津有味。

中國與歐洲的文化交叉不是單單的中國旅行或訪問后的印象記水平, 而是有關對中國的介紹和研究為歐洲近代文化的形成做出了舉足輕重的作用。 在歐洲近代史上中國是形成近代歐洲的一個因素。 在這種意義上看, 不可忽視歐洲看中國的視線引起變化的18世紀歐洲啓蒙主義時期。 杜赫德著書就站在歐洲對中國的視線有變化的中間位置。

本文章先簡單了解杜赫德著書出版時期的背景并調查最初在巴黎出版的法語原版和其他版本。 除了巴黎原版外還有在荷蘭海牙(Hague)用法語出版的海牙版(1736)、兩種英語翻譯版(1736-1741)、 德語翻譯版和俄語翻譯版四種。 通過對這些版本的調查可知, 杜赫德的著書不是用當時耶穌會傳教士常用的拉丁語而是用法語來書寫的。 而且次年法語版本以低廉的價格再次出刊, 同樣的法語版本這次却不同於第一次出刊的豪華精裝書。 法國原版出版后的第二年開始出版英文翻譯版。

通過對圍着互不相同的版本而出版的各國出版背景、時期、版本的形態與質量、收錄內容等進行的調查可以推測當時歐洲對中國學的關心有增無減。 同時當時的出版語言不是歐洲傳統語言拉丁語而是以本國語中心的翻譯版, 由此可見17世紀歐洲知識社會出現大眾化現象。 這普遍現象証實, 在近代歐洲國民國家(nation-state) 形成過程中曾普遍用本國語。

關鍵詞: 耶穌會, 傳教士, 杜赫德, 文化交叉, 中國與歐洲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9.29	2010.10.30	2010.11.4	2010.11.8	2010.11.30